

대학생 애착유형이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정선영** · 허영림***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애착유형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그룹과제수행상황에서의 자신감과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애착유형이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으로는 378명의 서울시내 K대의 대학생이 참여했으며, 애착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성인애착질문지를,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알아보기 위해, Keller(1989)의 학습동기측정검사에서 자신감과 만족감 부분만을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유형을 Bartholomew와 Horowitz(1991)에 의한 자기-타인의 이원모델에 따라 안정형, 회피형, 양가형, 공포형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험자의 약 60%가 안정애착유형을, 약 25%가 양가애착유형을, 나머지 10% 미만이 각각 회피와 공포의 애착유형을 보였다. 또한, 애착유형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그룹과제수행의 상황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룹과제수행의 상황에서 집단구성원을 조직하고,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방법을 선택하는데 유의한 정보를 시사한다.

주제어 : 애착유형, 그룹과제수행자신감, 그룹과제수행만족감

* 본 연구는 2008년도 국민대학교 연구지원비에 의해 수행됨.

**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전공 교수

I. 서 론

영유아기에 영아-주양육자와의 관계는 영아가 최초로 겪게 되는 인적 환경으로 이 시기에 형성된 주양육자와의 친밀한 애착은 후일에 아동의 지적, 인성 및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생에서 첫 3년이 사회정서 발달의 민감기라고 한다(Bowlby, 1973). 애착은 영아가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주양육자와의 접근가능성과 반응성을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정신적 표상으로서의 내적실행모델을 형성하고, 이는 애착사건에 대한 영아의 해석을 안내하는 역할로서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역사적으로 정신분석에서는 영아가 태어나서 모서의 젖을 통해 적절히 욕구충족을 경험하면서 모성에게 의존한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모성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모방하는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정신분석과 사회학습이론에서 말하는 의존성의 개념은 Bowlby(1958)와 Ainsworth(1969)에 의해 애착이란 개념으로 수정되었으며 Bowlby의 애착이론을 바탕으로 Ainsworth(1969)는 “낯선 상황 실험”을 만들어 애착측정을 가능케 하면서 사실상 애착연구의 활기를 띠게 되었다.

최근 들어 내적실행모델의 개념을 토대로 한 애착연구는 영아기를 넘어서 아동기와 성인기로 확장되었다. 영아대상으로 낯선 상황 절차(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유아대상으로 한 수정된 낯선 상황 실험(Main & Cassidy, 1988)과 애착 Q-set(Waters, 1987), 성인대상으로 성인 애착질문지(Hazan & Shaver, 1987)를 들 수 있다. 내적실행모델을 입증한 여러 연구에서 15개월경의 안정애착인 유아는 걸음마 시기에 리더쉽과 사회적 상호작용기술을 더 많이 보인 것으로 보고했으며(Waters, Wippman & Sroufe, 1979), 영아기에 안정적인 애착을 보이는 아이가 6세까지도 안정 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Main & Weston, 1981; Main & Cassidy, 1988), 종적연구에서도 어려서의 애착유형이 초등학교기간 동안의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있어 중요한 예언자임이 증명되었다(Bretherton, 1985). 초기 애착이론을 확장시켜 성인의 애정관계를 보았을때, 유아기의 주양육자의 애착유형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Hazen & Shaver, 1987). 다른 연구에서는 애착유형이 성인의 대인관계 과정과 직접 관련되어 불안/양가 애착의 사람이 안정애착보다 더 불안하고 적대적이어서 부정적인 자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obak & Sceery, 1988; Collins & Read, 1990). 국내연구에서도

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된 대학생일수록 대학생활을 더 잘 적응하고 자존감과 자기 표현력이 높고, 동료와도 원만하며 수줍음을 덜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경, 1993; 김동직과 한성열, 1997).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대학생 내담자들의 경우, 과거 힘들게 해왔던 악 순환적 대인관계의 패턴을 반복하여 상담 받으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위의 관련연구에 따르면, 초기 부모와의 유대관계로 형성된 애착유형은 영유아기, 아동기를 넘어 성인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관계의 질이 개인의 심리적인 발달 뿐 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성인 애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는 대학생 애착유형과 자존감 및 대인관계, 정체감, 자기개념과 자기가치감, 건강 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있다(박은경, 1993; 장휘숙, 2000; 김지현, 1999; 탁영란, 이은영, 2004). 반면,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분노경험, 방어 전략의 효율성, 대인불안, 자기 개념과 우울과 불안과의 관련성, 수줍음과 관계지향성 및 지각된 사회적지지,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연구(김세진, 1999; 박은영, 1998; 임지은, 2003; 김민동, 2003; 오가혜, 2001; 김은정, 권정혜, 1998)들이 있다. 위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대인관계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적 장애와 정신 병리에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애착관련 선행연구는 성인의 치료나 상담프로그램을 위해 집중되었으며 긍정적인 애착이 형성된 성인의 자존감, 독립성, 자신감, 만족감, 자기가치감과 같은 변인이나 특성과 관련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애착이 집단에서의 조직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애착유형이 자신감과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애착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라 자신감과 만족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라 자신감과 만족감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애착의 의미와 애착유형에 따른 특성

유아는 태어나서 최초로 맺는 사회적 관계인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과 타인, 세계에 대한 느낌, 태도, 행동 조직을 발달시킨다. 이렇게 영아와 주양육자 간에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애착이라고 정의하며, 애착은 주위환경에 정서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애정이나 사랑과 같은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정옥분, 2007). 주양육자와 안정 애착된 유아는 자아와 애착 대상에 대해 안정적인 실행모형을 가지므로 긍정적인 사회를 기대하고, 자기효능감을 가지므로, 긍정적 내적실행모형을 형성하게 되어 자기 정서를 알고 적절히 표현하며(Oppenheim, Nir, Warren, & Emde, 1997), 타인에 대한 긍정적 기대로 더 유능하게 행동한다. 안정애착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유아의 경우 주양육자의 민감성과 반응성을 통해 타인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얻는다고 믿으며, 자신에 대해 유능하고 효율적인 존재로 개념을 발달시키며, 이런 기본적인 인지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반면, 불안정애착을 경험한 유아는 자신에 대해 가치 없게 느껴 불신, 분노, 공격, 무감각 등의 특징을 보이고(Bretherton & Munholland, 1999), 대인과의 새로운 상황에서 과잉긴장하고 불안해하며 분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Solomon & George, 1999). 또한, 불안정애착유아는 각종 행동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높으며, 주양육자 외에 타인에게 비협조적이고, 비순종적이며, 칭얼대는, 분노 발작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Londerville & Main, 1981).

애착관계를 생애발달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본 단기횡단연구들은 성인기 애착유형이 유아기의 애착유형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Hazan & Shaver, 1987; Milkulincer, Florian & Waller, 1993), 이를 지지하는 여러 연구에서 일관적인 양상을 보이는 애착유형의 결과들이 보고되었다(Kiripatrik & Hazan, 1994; Scharfe & Bartholomew, 1994; 김은정, 권정혜, 1998). 그러나 Baldwin(1996)은 성인의 애착유형이 경험에 따라 수시로 변할수 있으며 상호작용하는 상대에 따라서 다양한 애착유형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즉, 성인 애

착유형을 안정된 성향변인으로 보기보다는 관계의 목적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 변인으로 보았다.

Bartholomew 와 Horowitz(1991)은 이러한 다양한 애착의 양상을 자기-타인의 이원 모델에 따라 안정형, 회피형, 양가형, 공포형의 4가지 애착유형으로 <표 1>과 같이 분류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안정형은 자신은 비교적 쉽게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편이고, 자신이 타인에게 의지하든 타인이 자신에게 의지하든 간에 자신은 편안하게 느낀다. 회피형은 자신은 가까운 정서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지내는 것이 편안하고, 본인은 독립심과 자기충족감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남들에게 의지하거나 남들이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양가형은 자신은 타인과 정서적으로 완전히 친밀해지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 타인이 가까워지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느낀다. 자신은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안심이며, 때때로 자신이 타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타인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봐 염려스러워 한다. 공포형은 자신은 남들과 가까워지면 왠지 편안하지가 않다. 자신은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원하기는 하지만, 타인을 완전히 신뢰하거나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어려우며 자신이 타인과 가까워지면 타인에게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한다.

<표 1> 애착유형에 따른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

안 정 형	회 피 형
(자신긍정 - 타인긍정)	(자신긍정 - 타인부정)
양 가 형	공 포 형
(자신부정 - 타인긍정)	(자신부정 - 타인부정)

기존 연구에 따르면 애착유형에 따른 개인의 특성들도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다. 안정애착집단은 자기만족감, 자기존중감이 높으며, 타인신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만족감이 높아 자기와 타인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호의적인 내적모델을 발달시키는 경향으로 타인과 친밀하여 의지하고, 버려진다고거나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zan & Shaver, 1987). 또한, 긍정적 애정관계를 맺으며

(Simpson, 1990), 행복하며 신뢰하는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며(Hendrick & Hendrick, 1989; Levy & Davis, 1988), 자기노출에 민감하지 않다(Mikulincer & Nachson, 1991).

회피애착집단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으로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Hazan & Shaver, 1987). 이들은 또한, 욕구좌절에 의한 적의를 보유하고, 그 적의로 대인관계에서 불신, 반항, 경쟁, 자기 말살적 행동을 나타내고, 타인과의 친밀감을 덜 추구하고, 자기노출을 꺼리며, 대인관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덜 확신적이며, 타인의존은 적으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Feeney & Noller, 1990).

양가애착집단은 타인과의 친밀관계를 열망하나 대인관계에서 불만족하게 느끼며, 자기 확신과 주장성이 약하고 자기가치감이 약하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또한, 타인과 인간본성에 긍정적 관점을 갖지만 타인에 대한 믿음은 안정 애착집단만큼 확고하지 않고, 인간본성에 대한 믿음에서도 다소 부정적이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그러나, 타인과의 부정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여전히 안전감의 토대로 생각하며 그에게 의지하려 한다. 즉 자기에 대해서는 무가치하게 느끼지만, 주관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이상화시키는 특징이 있다. 자주 그들의 파트너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거나 그들을 버릴 것이라고 걱정하거나 극단적으로 가까워지기를 바란다(Hazan & Shaver, 1987). 종종 부정적인 애정관계(Simpson, 1990)의 경향이 있고, 낮은 수준의 신뢰, 헌신, 만족 그리고 상호의존성(Collins & Read, 1990; Simpson, 1990)과 강박적이고 열중하며 질투하는 애정의 형태를 띤다(Hazan & Shaver, 1987; Hendrick & Hendrick, 1989; Levy & Davis, 1988).

공포애착집단은 타인과의 부정적인 경험에 압도되어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자기와 타인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그들은 타인과 가까워지고 타인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려우며,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지면 불안해한다(Hazan & Shaver, 1987). 그들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특성은 그들의 애정상대에 대한 강박적인 편향이라기 보다는 친밀에 대한 심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고 된다(Hendrick & Hendrick, 1989; Levy & Davis, 1988).

2. 애착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자신감

애착은 사회인지 발달의 근간으로서, 부모와 긍정적인 애착이 형성된 자녀는 자라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이며 총체적인 평가로 정의된다(Gecas, 1983; Rogenberg et al., 1995). Hater(1990)는 지각된 능력과 지각된 수용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데, 지각된 능력이란 신체적 외관, 사회적 수용, 학업성취능력, 체육과 예술에 대한 소질 그리고 품행과 관련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이며, 지각된 수용은 부모나 친구, 교사와 같은 중요한 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를 말한다. Rogers(1961)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이 보다 능동적이고, 안정적이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신에 대하여 가치있게 느끼고 현실적 기대를 하며 타인에 대해 우호적이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하며,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하고(Kernis et al., 1993), 약물남용, 비행, 우울 그리고 자살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했다(Bolognini, Plancherel, Bettschart & Halfon, 1996).

자아존중감과 애착과 관련된 연구에서 안정된 애착은 자기존중감과 자기표현력(박은경, 1993; Armsden & Greenberg, 1987; Bell, Avery, Jenkins, Feld, & Schoenrock, 1985), 자아개념(김민동, 2003; 임진영, 장재숙, 2003), 자기 효능감(Mikulincer, 1998; Mikulincer, Florian, & Weller, 1993)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애착은 주변사람들과 더 빈번한 교류와 만족스러운 의사소통 및 원만한 대인관계, 수줍음, 대인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김민동, 2003; 박은경, 1993; 오가혜, 2001; 임진영, 장재숙, 2003; 정민현, 2003; Armsden & Greenberg, 1987; Bell, Avery, Jenkins, Feld, & Schoenrock, 1985). Bandura는 낮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방해하고, 스트레스 사건을 다루지 못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의 평가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믿으며,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만들게 된다고 했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대인불안을 보인다고 보고했다(조용래, 원호택, 1997; Beck, Emery, & Greenberg, 1985; Edelman, 1985; Muris, 2002).

애착유형과 대인관계의 연구에 의하면 안정 애착집단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며 그들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매사 확신에 차있고, 자기 주장적이며, 더 신뢰성있고, 덜 냉담하고, 덜 내향적이었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Feeney와 Noller(1990)의 연구에서도 불안.양가.회피형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안정형은 그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더 신뢰하고 자신감이 높으며 애정관계에서 다른 유형들보다 더 성공적이었다고 보고했다. 애착유형에 따른 기존의 연구에서 회피형의 사람들이 안정형에 비해 좀 더 부정적인 자기상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지만, Collins와 Read(1990)는 이 두 유형의 사람들 간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즉, 안정형의 사람은 대부분 연구에서 긍정적인 표상을 갖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나 회피형과 안정형사이나 회피형과 불안.양가형 사이에 아무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애착을 측정하는 자기보고법 이외의 면접을 이용한 연구에서도 안정형은 사회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여유가 있으며, 공격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안정감이 높았다. 회피형은 높은 공격성향과 방어를 보였으며, 공포형은 수줍음이 많고, 대인관계에서 불안 수준이 높으며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국내연구에서도 부모에 대한 애착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조영순, 1998),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은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주며 학교생활에서 성공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므로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했다(지수경, 2001; 최은실, 2001). 장휘숙(1997)의 연구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모두 높은 집단이 가장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고 모에 대한 애착은 낮지만 부에 대한 애착이 높은 집단은 그 다음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며 부모 모두에 대한 애착이 낮은 집단이 가장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닌다고 보고했다. 장휘숙의 다른 연구(1997)에서도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율성과의 관계는 부모 모두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 청소년들이 친구에 대해서도 높은 애착을 갖고 더 높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에도 부모에 대한 애착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진(1999)은 안정애착유형을 가진 사람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자기인식이 긍정적이며 타인에 대해서도 신뢰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회피형은 높은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을 가지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 표상을 가진다. 양가형은 자기에 대해서는 낮은 자아존중감,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 표상을 갖는다. 공포형은 자기에 대한 낮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효능감,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 표상을 가진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안정형과 회피형이 부정적인 자기모델을 갖는 양가형과 공포형보다 그룹과제수행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애착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만족감

기존의 연구에서는 애착이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이는 안정된 애착표상을 지닌 유아가 자신 및 타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내적 실행 모델을 지니므로 타인과의 상호작용 시 적절한 상호작용을 보였다(Bretherton & Munholland, 1999; Cassidy, 1990; Cicchetti, 1990). 실제로 Warren 등(2000)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애착표상 결과가 내면화 행동문제를 가장 잘 예언하였으며, 이민주(2001)의 연구에서도 긍정적 애착 표상을 보인 남이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잘 수용된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유아가 안정된 표상을 보일수록 과제해결을 위한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시 과제해결에 더 많은 관심과 인내를 보였다. Kobak과 Sceery(1988)에 의하면 안정된 내적 작동모델을 가진 대학생은 자아탄력성이 많고, 불안과 적개심이 적으며, 가족의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며, 괴로움을 적게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회피적 내적 작동모델의 대학생은 자아탄력성이 낮고, 적개감은 높으며, 많은 외로움을 호소하고, 가족의 지원을 적게 받는 것으로 지각했다. 불안한 내적 작동모델의 대학생은 자아탄력성이 낮으며 불안은 높고 개인적 괴로움이 많다고 호소하나, 회피적 집단보다는 가족을 더 지원적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성인의 애착유형이 대인관계 과정,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적 변인과 관련이 있으며,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성인들은 고독감, 흡연, 알코올 중독, 비정상적인 성관계 등의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대학원생의 애착이 유아기 초기에 경험한 애착의 유형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는데, 안정애착은 유아기 가족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였고 타인을 신뢰하는 성향이 있었으며, 회피애착은 유아기에 부모와 떨어져 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불안애착은 타인에 대한 신뢰감, 헌신도가 낮고 다른 두 유형과 비교해서 부모를 믿지 못하는 성향을 보였다(Feeney & Noller, 1990). 애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안정형은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건설적인 행동을 했으며, 불안형은 높은 수준의 불안과 낮은 자아 탄력성으로 스트레스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고, 회피형은 내적 고통감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했다(Kobak & Sceery, 1988). 안정형은 힘들 때 타인으로부터 편안함을 찾으려는 무의식적 내적규칙을 소유하므로 효율적 지지를 얻지만, 회피형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부인하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 불안형은 지나치게 자신의 고통에 집착하고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지,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과도하게 염려하고, 타인의 거부에 지나치게 민감하면서도 스트레스 사건에서 애착인물에게 지나치게 매달리고 의존하므로 타인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Collins & Feeny, 2000; Kobak & Sceery, 1988)

애착에 따라 대인관계 양상이 달라지며 대인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친밀감이나 지지와 같은 하위영역에서도 애착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실제로 회피형의 사람들이 안정형이나 불안형 보다 낮은 수준의 친밀감을 나타냈으며(Bartholomew, 1991; Hazen & Shaver, 1987), 자기개방을 잘 하지 않으며 타인이 자신에게 개방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즉 회피형의 자기개방 수준은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이나 상대가 자기개방을 하는 수준에 상관없이 일정했다. 반면, 불안형의 사람들은 높은 친밀감의 욕구는 나타내지만 욕구를 충족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고, 안정형과 같이 대인관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유롭게 자기개방을 하지 않더라도 그 수준의 친밀감을 보였다(Mikulincer & Nachshon, 1991). 적절한 지지를 받은 사람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애착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지지행동을 촉진한다. 안정형은 다른 두 유형보다 자신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보고하며, 회피형의 남성은 나머지 두 유형보다 자신의 파트너가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덜 지지적인 것으로 인식했다(Simpson, 1990). O'koon(1997)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상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자존감과 삶의 만족감이 높았으며, 가족과 만족스러운 의사소통을 하며, 부정적 정서 상태와는 더 낮은 상관을 보인 것으로 보고 한다.

종합하여 보면, 안정애착형은 유연하고 복잡한 인지 체계를 가지고 있어 대인관계 및 정서경험에서 적응력이 있으며, 효능감이 높아서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보이는 반면, 불안애착형은 정서경험이나 대인관계에 투입되는 자원이 부족하여 갈등상황이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Collins & Read, 1990, 1994; Kobak & Sceery, 1988; Mikulincer & Nachson, 1991; Hazen & Shaver, 1987; Mikulincer,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유형이 그룹과제수행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상황에서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 구체적으로는 안정애착을 가진 집단이 불안정 애착을 가진 집단에 비해 그룹과제수행에 더 높은 만족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연구

1) 조사 기간

조사는 총 2주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전공과 학년의 학생들을 조사대상자로 참여하였다.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완성하는 데는 1 주 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회수하였다.

2) 조사 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 시내 K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391 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애착질문지에 중복 응답하거나 다른 척도에 부분적으로 응답한 자료들을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자료 중 관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반응이 상충되는 13명의 자료를 제외한 378 명의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남자는 132명 여자는 255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2.5세 (표준편차 = 4.05), 평균 학년은 2.5년(표준 편차 1.09년)이었다. 피험자 손실은 주로 개인의 애착유형을 결정하는 문항에서 발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인 애착 질문지는 강제 선택형 범주 척도였는데, 13명 의 학생이 애착유형 질문에 대한 반응의 최종점수에서 두 개 이상의 유형에 동일한 점수를 획득함과 동시에 그 중 본인이 선택한 애착유형과 일치하는 것이 없을 경우에 최종 분석에서 제외했다.

3) 조사 도구

조사 도구로는 애착유형 검사지와 그룹과제동기 검사지의 두 종류가이다. 첫째, 대 학생의 애착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성인 애착질문지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애착유형 검사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전 반부는 일반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의 반응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7점 평

정척도로 평가하는 12개의 문항으로, 후반부는 주어진 네 가지 애착유형 중에서 피험자 본인이 한 가지유형을 선택하게 하는 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어진 12개의 문항에 대한 총점수와 피험자 본인이 선택한 애착유형이 일치하였을 때 그것을 최종적인 개인의 애착유형으로 결정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 α 값 .686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애착유형 검사지는 애착유형과 관련된 연구 중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성인애착질문지를 변안한 것으로, 최근 한국의 애착유형관련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내용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인애착질문지를 이용한 면접법을 사용하지 않고, 설문지법을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본 연구는 상담원을 방문한 내담자가 아닌 일반대학생을 상대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해 개인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 피험자가 꺼려해서 연구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본 연구의 목적이 애착유형의 특성이 그룹과제수행에서의 자신감과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과 설명력을 객관적인 양적 연구 결과로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에 면접법 보다는 설문지법이 더 효과적인 연구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그룹과제수행에 학습동기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지는 Keller(1989)의 학습동기 측정검사지를 그룹과제 수행상황과 연결지어 자신감과 만족감 요인만을 본 연구 목적에 맞게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검사지는 일반적인 그룹과제수행의 자신감에 대한 7개 문항과 만족감에 대한 8개 문항으로 구성된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평정척도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비록 Keller(1989)의 학습동기 측정검사지는 본 그룹과제수행의 동기에 국한지어 개발된 도구는 아니지만, 물어보는 항목이 개인의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측정하기에 매우 타당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도 또한 매우 높은 설문지여서 질문의 대상만을 그룹과제수행으로 바꾸어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 검사지의 신뢰도는 자신감 척도가 Cronbach α 값 .858을 나타냈다.

2. 자료 처리 및 분석

1) 애착유형 분석

애착유형 분석을 위해서는 12개의 문항에 대한 피험자의 반응총점에서 안정형, 양

가형, 회피형, 공포형 각각에 해당하는 4문항의 총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유형과 자기진단에 의해 애착유형을 평가하는 1문항의 결과가 일치하는 결과를 피험자의 최종 애착유형으로 분류했다.

2) 애착이 그룹과제수행시의 자신감과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과 예측력

애착이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애착유형의 특성이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예측하는 구체적인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IV. 연구 결과

1. 애착유형분류

애착유형은 네 개의 애착유형에 대한 각각 세 개로 구성된 12개의 문항에 대한 평정척도 점수에서 가장 높은 총점을 나타낸 유형과, 피험자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애착유형이 일치할 경우에 최종적인 애착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 387(100.00%)명의 피험자 중에 232명(59.9%)이 안정애착유형을, 92명(23.77%)이 양가형의 애착유형을 나타냈으며, 28명(7.24%)과 25명(6.46%)이 각각 공포형과 회피형의 특성을 보였다.

<표 2> 피험자의 애착유형별 집단 사례수(%)

애착유형별 집단 사례수 (%)					
애착유형	안정형	양가형	회피형	공포형	전체
피험자 수 (%)	232(59.9%)	92(23.77%)	25(6.46%)	28(7.24%)	387

2.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

피험자의 애착유형이 일반적인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는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종속변인인 그룹과제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 변인 간에 유의도 수준 .01에서 Pearson 상관계수 .811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신감과 만족감 점수가 모두 정상분포성과 동변량성을 충족시켰다. 따라서 중다변량분석을 통해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유의도 수준 .05에서 Wilks' Lambda 값이 .953 ($F=3.119$)를 나타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의 애착유형이 일반적인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는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안정애착유형을 보이는 피험자는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 모두에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회피애착유형을 보이는 피험자와 공포애착유형을 나타낸 피험자가 비슷하게 가장 낮은 만족감을 보였다. 이러한 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유의도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 애착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scheffe 검증 결과에 의하면, 회피애착유형은 안정애착유형과, 안정애착유형은 회피와 공포애착유형과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양가애착유형은 안정애착유형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애착유형에 따른 그룹동기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 평균(표준편차)

		안정형	회피형	양가형	공포형	전체	F	p
	자기	긍정	긍정	부정	부정			
	타인	긍정	부정	긍정	부정			
동기	자신감	29.63(6.09)	26.40(4.28)	28.35(5.96)	26.24(5.63)	28.78(6.02)	5.428	.001*
	만족감	19.33(4.45)	16.92(4.53)	18.57(4.38)	16.66(4.02)	18.73(4.48)	5.713	.001*
동기전체		48.99(10.19)	43.13(8.26)	46.97(9.88)	42.68(8.93)	47.51(10.09)	6.30	.000*
Wilks'Lambda 값 = .953 ($F=3.119$)*								

*p<.05 (자신감 최고점-40/최저점-8) (만족감 최고점-35/최저점-7)

3. 애착유형과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과의 상관관계

1)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애착유형과의 상관관계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애착의 하위요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tepwise비교를 통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애착의 특성으로는 안정애착유형으로서 전체변량의 9.3%를, 회피애착유형은 1.9%를, 공포애착유형은 1.0%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회피애착유형, 안정애착유형, 그리고 공포애착유형의 특성으로 일반적인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예측하기 위한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Y'(\text{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 = 25.717 + .601X_1(\text{안정형}) - .264X_2(\text{회피형}) - .210X_3(\text{공포형})$$

<표 4> 애착유형과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다중상관분석 결과

Model	R	R ²	B	F	P
안정형	.180	.093	.306	26.740	.000*
안정형+회피형	.350	.122	-.170	11.424	.001*
안정형+회피형+공포형	.363	.132	-.118	19.384	.000*

*p < .05

2)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만족감과 애착유형과의 상관관계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애착의 하위요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tepwise비교를 통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그룹과제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애착유형은 안정애착유형으로서 전체변량의 8.4%를, 회피애착유형은 1.2%를, 공포애착유형은 0.5%의 유의한 통계적 설명력을 보였다. 회피애착유형, 안정애착유형, 그리고 공포애착유형의 특성으로 일반적인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예측하기 위한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Y'(\text{그룹과제수행에 대한 만족감}) = 15.403 + .436X_1(\text{안정형}) - .121X_2(\text{회피형}) - .114X_3(\text{공포형})$$

<표 5> 애착유형과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만족감과의 다중상관분석 결과

Model	R	R ²	B	F	P
안정형	.199	.084	.289	20.356	.000*
안정형+회피형	.310	.096	-.111	4.807	.029*
안정형+회피형+공포형	.318	.101	-.085	14.329	.000*

*p < .05

V. 논의 및 결론

1. 조사 결과에 관한 논의

대학생의 애착유형은 반 이상(60% 정도)이 안정애착유형을, 약 25% 정도가 양가에 착유형을, 그리고 10% 미만이 공포형과 회피형의 애착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불안정애착 보다는 안정애착을 보이는 피험자가 자기존중감과 대인관계에서 더 높은 자기효용감을 보인다고 제언한 것처럼(박은경, 1993; 황경옥, 2001; 정민현, 2003, 김동직과 한성열, 1997; 이귀선과 정남운, 2003), 안정애착유형을 보이는 피험자는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에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사후검증결과, 공포애착유형과 회피애착유형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양가형의 경우는 불안정 애착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하나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과제수행과 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타인을 모두 부정하는 회피형이나 공포형과는 달리 유의할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불안정애착 보다는 안정애착을 보이는 피험자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에서 더 긍정적인 기대를 한다고 제언한 것처럼(Bretherton & Munholland, 1999; Cassidy, 1990; Cicchetti, 1990), 안정애착유형을 보이는 피험자가 일반적인 그룹

과제수행에 대한 만족감에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사후검증결과, 양가 애착유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으나, 공포와 회피애착유형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안한 것처럼(Hendrick & Hendrick, 1989; Levy & Davis, 1988), 공포애착의 경우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감, 회피애착의 경우 이전의 애착관계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각인되어 타인에 대한 분노나 공격성, 타인과 친밀해지는 관계를 두려워하게 하기 때문에 그룹과제수행이라는 상황이 만족감을 주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양가형의 경우는 자신에 대한 부정이 있을지라도 타인에 대한 긍정모델이 각인되어 있으므로, 그룹과제 수행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타인을 모두 부정하는 회피형과 공포형과는 달리 만족감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도 안정애착의 특성이 그룹과제 수행시의 자신감과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공포와 회피애착 특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되었으나, 양가애착유형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화하는 안정애착의 특성은 그룹과제수행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회피형과 공포형과 같이 타인에 대해 부정화하는 애착의 특성은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신을 부정하나 타인을 긍정화하는 양가형의 경우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그룹과제수행과 같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작업환경에서 구성원을 조직하고,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학습자의 유형에 맞는 학습방법을 제공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피험자를 4년제 대학생에 제한하여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초,중,고 학생이나, 대학교 졸업 후의 일반인에게 일반화하기가 조심스럽다는 점이다. 둘째, 그룹과제 수행 시에 구체적인 과제상황에 따라 자신감과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는 다양한 상황의 변수를 배제하기 위해 일반적인 그룹과제 수행 시에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피험자의 경향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2.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으로는 첫째,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애착유형에 따라 집단 조직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애착유형이 조직의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체계화시키는 것은 집단역동성과 집단수행 향상에 유의한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피험자의 여러가지 일반적인 특성들, 예를 들면, 성별과 나이와 같은 특성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처럼 안정애착유형을 보이는 피험자는 그룹과제수행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더 높은 자신감과 만족감을 보임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애착유형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세부요소들의 발견은 원활한 그룹원을 구성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애착유형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상황뿐만 아니라, 자기조절학습과 같은 개별화학습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양가애착의 경우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룹과제수행과 같은 상황에서 안정애착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신에 대해 긍정하고 인식하도록 강조하는 개별학습상황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의문이다. 또한, 자신에 대한 긍정과 타인에 대한 부정을 하는 회피형의 경우, 그룹과제수행에서는 부정적이었으나,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요하지 않는 개별학습상황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의문이다. 본 연구가 안정애착유형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시의 자신감과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면, 자신과의 관계 형성 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애착유형에 관한 연구 또한 개별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학습방법 설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지연(1995).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직·한성열(1997). 한국 대학생의 애착유형 분포와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1권 제2호, pp. 91-109.
- 김민동(2003). 애착유형과 자기개념 우울 및 불안과의 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 김세진(1999). 성인 애착유형에 따른 분노 경험 양상의 차이. 서울대학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 김은정·권정혜(1998).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성인기 애착관계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7권 제1호, pp. 139-153.
- 김지현(1999). 성인초기 애착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자기가치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박은경(1993). 애착유형이 자존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1998). 애착유형에 따른 방어전략의 효율성 비교.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가혜(2001). 수줍음과 우울에 대한 관계지향성과 사회적 지지와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임지은(2003).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대인불안의 관계. 인하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임진영·장재숙(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이 아동의 대인관계에 주는 영향: 종단적 분석. 초등교육연구, 제16권 제1호, pp. 379-399.
- 이민주(2001). 유아의 애착표상과 자아지각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 조영순(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애착이 대인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지수경(2001). 청소년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 장휘숙(1997). 아동기 이후의 애착에 관한 최근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pp. 439-454.
- 장휘숙(1997). 성인 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0권 제2호, pp. 123-138.
- 장휘숙(2000).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1).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3권 제2호, pp. 115-130.
- 정민현(2003). 애착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인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정정숙(1994). 자아정체감과 독립성 및 애착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2007). 애착의 발달. 사회정서발달. 학지사.
- 조용래 · 원호택(1997). 대인불안에 대한 인지적평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의 개발과 타당도에 관한 연구. 심리학의 연구문제, 제4권, pp. 397-434.
- 최은실(2001). 애착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탁영란 · 이은영(2004). 애착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건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동간호 학회지: 제10권 제1호, pp. 89-97.
- Ainsworth, M. D. S. (1969). Object relations, dependency, and attachment: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nfant-mother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Vol. 40, pp. 969-1025.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 situations*. Hillsdale, NJ: Erlbaum.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6 No. 5, pp. 427-454.
- Baldwin, M. W., Keelan, J. P., Fehr, B., Enns, V., & Koh-Rangarajoo, E. (1996). Social-cognitive conceptualization of attachment working models: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1, pp. 94-109.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1, pp. 226-244.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Bell, N.J., Avery, A.V., Jenkins, D., Feld, J., & Schoenrock, C. J. (1985). Family relationships and social competence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4, pp. 109-11.
- Bolognini, M., Plancherel, B., Bettschart, W., & Halfon, O. (1996).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in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Adolescence*, Vol. 19, pp. 233-245.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ac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Vol. 39, pp. 350-373.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Loss*. NY: Basic books.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50*, pp. 3-35.
- Bretherton, I., & Munholland, K. A. (1999). Internal working model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A construct revisited. In J. Cassidy,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NY.
- Cassidy, J. (1990).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in the study of attachment and the self in young children.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Chicago Press.
- Cicchetti, D., Cummings, E. M., Greenberg, M. T., & Marvin, R. S. (1990). An organization perspective on attachment beyond infancy.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Chicago Press.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s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Vol. 58, pp. 644-663.
- Edelman, R. J. (1985). Dealing with socially embarrassing events: Socially anxious and non-socially anxious groups compared.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4, pp. 281-288.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8, pp. 281-291.
- Gecas, V., & schwalbe, M. J. (1983). Beyond the looking-glass self: social structure and efficacy-based self-esteem.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46, pp. 77-88.
- Harter, S. (1990). Processes underlying adolescent self-concept formation. In R. Montemayor, G.R. Adams, & T.P. Gullotta (Ed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 transitional period?* Newbury park, CA: Sage.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2, pp. 511-524.
- Hendrick, C. & Hendrick, S. (1989). Research on love: Does it measure 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6, pp. 784-794.
- Kirkpatrick, L. A., & Hazan, C. (1994). Attachment styles and close relationships: A four-year prospective study. *Personal Relationships*, Vol. 1, pp. 123-142.
- Keller, M. J. (1989). *Motivation by Design*. Unpublished Workbook, Tallahassee, FL, Florida State University.
- Kernis, M. H., Cornell, D. P., Sun, C., Berry, A., & Harlow, T. (1993). There's more to self-esteem than whether it is high or low: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5 .No. 6, pp. 1190-1204.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pp. 135-146.
- Levy, M. B., & Davis, K. E. (1988). Love styles and attachment styles compared: Their relations to each other and to various relationships characterist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pp. 439-471.

- Londerville, S., & Main, M. (1981). Security of attachment, compliance, and maternal training methods in the second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7, pp. 289-299.
- Main, M., & Weston, D. (1981). The quality of toddler's relationship to mother and father: Related to conflict behavior and the readiness to establish new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Vol. 52, pp. 932-940.
- Main, M. & Cassidy, J. (1988). Categories of response to reunion with the parent at age 6: Predictable from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and stable over a 1-month perio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4, pp. 415-426.
- Mikulincer, M., & Nachson, O. (1991). Attachment styles and pattern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1, pp. 321-331.
- Mikulincer, M. (1998). Adult attachment style and affect regulation: strategic variations in self-apprais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5, pp. 420-435.
- Mikulincer, M., Florian, V., & Weller, A. (1993). Attachment styles, coping strategies, and post-traumatic psychological distress: The impact of the Gulf War in Isra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4, pp. 817-826.
- Muris, P. (2002).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symptoms of anxiety disorders and depression in a normal adolescent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2, pp. 337-348.
- O'Koon, J. (1997).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in late adolescence and their relationship with self-image, *Adolescence*, Vol. 32 No. 126, pp.471-482.
- Oppenheim, D., Nir, A., Warren, S., & Emde, R. N. (1997). Emotion regulation in mother-children's narratives and adap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3, No.2, pp. 284-294.
- Rosenberg, M., Schooler C., Schoenbach, C., & Rosenberg, F. (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0, pp. 141-156.
- Rogers, C.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 Scharfe, E., Bartholomew, K. (1994). Reliability and Stability of Adult Attachment

- Patterns. *Personal Relationships*, Vol. 1, pp. 23-43.
- Simpson, J. A. (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9, pp. 971-980.
- Solomon, J., & George, C. (1999). The measurement of attachment security in infancy and childhood.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NY.
- Warren, S. L., Emde, R. N., & Sroufe, L. A.(2000). Internal representations: Predicting anxiety from children's play narrativ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 39, No. 1, pp. 100-107.
- Waters, E. (1987). *Attachment Behavior Q-set*. Unpublished manual,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s, New York.
- Waters, E., Wippman, J., & Sroufe, L. A. (1979). Attachment, positive affect, and competence in the peer group: Two studies of construct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Vol. 50. pp. 21-829.

ABSTRACT

The Effects of Attachment Styles of University Students on Confidence and Satisfaction Levels in Group Project Performance*

Joung, Sun-Young** · Hur, Young-Rim***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ttachment styles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confidence and satisfaction levels toward group project performance, involving their social interactions with others. In addition, it also sought to establish a model for predicting confidence and satisfaction levels in a group project performance environment. 378 university students at K university in Seoul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as subjects. For the research instruments themselves, the researchers used revised versions of the adult attachment questionnaire (Bartholomew & Horowitz, 1991) and the learning motivation measurement instrument (Keller, 1989).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pproximately 60% of the subjects exhibited a secure attachment style, approximately 25% of them exhibited an ambivalent style, and less than 10% of them exhibited an avoidant and controlling style respectively. These attachment styl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levels of 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group project performance at alpha of .05. The current research results provide useful guidance in regards to effectively organizing group members in group project

* This research is supported by 2008 research fund at Kookmin University.

** Kookmin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Assistant Professor

*** Kookm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ssistant Professor

performance environments and selecting appropriate learning methods based on learner's preferences.

Key Words : Attachment style, Confidence in group performance, Satisfaction in group performance

투고일 : 2월 9일, 심사일 : 5월 2일, 심사완료일 : 5월 20일